도깨비 Episode\_6

나 이 집 두 번째야. 이러다 단골집 되겠다. 우리 그때 저기 앉았는데.

Welcome to Quebec, please have a seat.

그니까요, 뭐 외국엘 와 봤어야죠.

그니까 하필 아홉 시에 뭔 해외야? 나 스물아홉엔 집 앞 슈퍼도 안 나갔어.

진짜요?

어, 약속이 없어서.

저 그래도 외국 처음 온 사람 안 같게 엄청 잘 다녀요. 조금 헤매고 밥도 안 굶고 소도 한 덩이 크게 먹을게요. 저 어떤 남자랑 멋진 레스토랑에 왔거든요.

레스토랑이 멋지면 어떡해? 남자가 멋져야지. 졸려, 끊어.

네, 주무세요. 대표님 여기요.

스물아홉의 너는 계속 환하구나. 하지만 네 옆에 나는 없구나. 나의 생은 결국 불멸을 끝냈구나. 내 죽음 뒤에 그 시간의 뒤에 앉아있는 너는 내가 사라진 너의 생은 나를 잊고 완벽히 완성 되었구나. 나는 사라져야겠다. 예쁘게 웃는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선택, 이 생을 끝내는 것. 결국 난 그 선택을 했구나.

★

인간처럼 보여야 하니 걸어 가자.

타시죠.

인간이면 인천까지 걸어서 못 가요.

아.

근데 나 같이 나와도 되는 거야?

그쪽 보고도 친구랑 나오라고 했어. 남자는 원래 친구랑 있을 때 모습을 봐야 해. 서로 말 못 맞추고 실수 하거든. 그 실수가 바로 그 남자의 본 모습이지.

실수를 해도 저런 남자들 만나 봤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들 어떤 여자 만날까? 차에 옷에 시계, 어우 얼굴까지.. 아, 어떤 년은 좋겠다.

어, 좋아.

★

검 좀 뽑아줘, 지금. 부탁이야.

갑자기 나와서 무슨, 좀 전에 노크 했는데 답도 안 해 놓고.

답하러 나왔잖아. 이제 그만 하고 싶어.

뭘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

아까 결국 했다는 선택, 그거요? 그게 뭔데요? 정확히 어떤 선택을 하셨다는 건데요?

대답만 질문 말고.

죄송한데요, 그러기엔 제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요.

무슨 조사?

아저씨 이름 찾아 봤어요. 인터넷으로. 생애, 업적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던데, 애초에 누가 다 지워 버린 것처럼.. 아저씨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서 뭔가 발견한다면 너는 나를 아주 많이 원망 하게 될 거라고 무언가는 검이었고 저는 그걸 발견 했고 아저씨 원망 안 하는데 원망할거라고 한 거 보면 그건 뭔가 더 남아 있다는 거구, 그래서요. 그 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죠, 아저씨 혹시 나쁜 일 해서 역사 속에서 기록이 삭제 된 거예요? 나쁜 일 해서 벌 받는 거면 검 뽑아주기 좀 그렇잖아요. 아저씨 혹시 뭐 역모 그런 거 했어요?

어, 맞아 네 말이. 살아 남기 바쁜 생이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 안간힘을 섰으나 죽음 조차 명예롭지 못했다. 왕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아갔고 내 한걸음 한걸음에 죄 없는 목숨들이 생을 잃었다. 내 죄는 용서 받지 못했고 지금 나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검이 그 벌이다. 근데 그게 벌이래도 900년 받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벌일 리 없어요. 신이 벌로 그런 능력을 줬을 리가 없어요. 아저씨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저씨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면 도깨비만 존재 하게 했을 거예요. 도깨비 신부 만나게 해서 그 검을 뽑게 했을 리가 없어요.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사랑 받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말한 나쁜 일은 왕의 여자를 사랑해서 막 하옥하라 그런 버전 이었어요. 역모 얘기는 죄송해요.

그럼 이제 나 예뻐지게 해주면 안될까?

네, 그건 안되겠어요.

그래 잘 생각.. 어?

아, 나쁘다. 아저씨 900년을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900년을 매일 절실했겠네요.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아니, 언행일치를 좀 해주면 안될까?

슬퍼서 일단 울기는 하는데요, 자꾸 맨입으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 예뻐지시기에는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라고?

들었잖아요. 저도 불쌍해 봐서 아는데요. 자고로 불쌍할 땐 동정보다는 뭔가 확실한 게 더 좋거든요. 저 알바 가야 될 시간이네요.

야.

저 알바 다녀올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원할지. 나보다 더 불쌍해. 내가 다 혼내 줄 거야.

아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돈, 집, 보석 뭐 그런 거?

과연 그걸까요?

그럼 혹시.. 네가 필요하면 내가 그것까지 해준다고 했던 그거?

뭐 사랑이요? 보석 가득한 집을 돈으로 사서 사랑을 담아 주실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

너 가. 빨리 가! 알바 가!

난 벌써 말했었는데 전직 무신이시라 그런지 암기 쪽은 별로 신가 보다.

직업의 귀천(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어? 너 그거 직업 비하야. 위로도 해주고 따라 울어도 주는데

검은 안 뽑아 준다. 어찌 그 슬픈 와중에 그런 결론까지 갔을까?

대표님 여기요.

그 와중에 대표님을 만났군, 죽는 건 죽는 거고. 대표님? 하.

여기요,

여기요? 허!

★

이쪽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저는 자영업. 같이 오신 친구분은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친구 아니고 한참 동생이고 직업은 재벌 3세입니다. 그래서 벌 받나 봐요. 당신이라는 벌. 유덕화입니다.

아, 네.

그쪽은요? 그쪽은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없어요?

일종의 서비스직. 자세한 건 업무 특성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오늘은 이름 있어요?

김우빈.

서비스 직이라더니 웨이터인가 봐.(웨이터는 연예인 이름을 가명으로 많이 사용함)

다 들려 계집애야. 명함 있어요? 주세요. 놀러 갈게요.

아, 명함. 매번 뭐가 있어야 하는군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어?

왜? 어? 진짜 재벌이었어요?

네, 태어나 보니 그렇더군요.

후계자 수업 받는 모습인가 봐. 오 설렁탕 드셔 입맛 소탈하신 것 봐.

제가 몰라 뵀네요. 돈 많은데 키 크고 어리고 잘생긴 건 판타지에서나 봐서. 전 써니라고 해요. 이름 너무 멋져요. 유덕화.

써니 씨도요. 멋져요 이름.

와 센스 있으셔라, 한 번에 딱딱 알아 들으시네요.

근데 여기 왠지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먼저 갈게.

그러세요.

라고 해.

먼저 갈게요.

그쪽 분도.

먼저 갈게.

방금 제가 한 건 다 잊으시고.

다들 어디 갔어요?

바쁜 일 있어서 먼저들 가신다고.

뭐 어쨌길래 둘 다 갔어? 얘 원래 그런 애 아닌데.

저는.. 좀 아, 이거 드릴게요.

괜찮아요.

먼저 짚으셨잖아요.

돈은 우빈 씨가 냈잖아요.

더 잘 어울리시니까..

알았어요. 받아 둘게요. 반지 받았으니까 번호 알려주실래요?

제 번호 어제 전화 드린 그 번호..

우빈씨 말고 재벌 3세 분, 친구가 명함을 가져가 버려서 연락처를 모르겠는데 걔한테 묻기는 좀 그렇고 그분이 진짜 천호그룹 유덕화면 제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이요?

건물주 님.

그니깐 번호 좀요. 제가 할말이 좀 많아서요.

잠시만요.

줘보세요. 제가 하는 게 빨.. 지금 던지신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

전 그냥 당황해서 고맙습..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패턴 뭐예요? 아님 비번?

그런 거 없는데.

매번 뭐가 참 많이 없으시네요.

TEXT ON THE SCREEN

덕화

도깨비

도깨비신부

선희아니곳ㅅㅓ니

도깨비 내외랑 아는 사이신가 봐요.

아 뭐 본의 아니게.

이 도깨비는 업종이 뭐예요? 요식업? 내가 아는 도깨비는 떡집인데.

아 제가 아는 도깨비는 그냥 업이 많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

인간의 약이 듣기는 듣는 거야?

술과 약 중에 선택해 봤어.

넌 잘 만나고 왔어?

술 마시잖아. 이상한 사람이래. 뭐가 많이 없잖아 내가. 특히 명함.

잘 속였네, 사람 아닌데.

조증이야, 우울증이야?

통증이야.

넌 그저 원칙을 어기고 인간의 생사에 관여해서 생긴 부작용 같은 거니까. 그냥 원래 명대로 죽는 방법도 있어. 그게 필요하면 그것까지 하고, 사랑해.

내 입이 뱉은 말들이 다 다시 나한테 돌아와. 인간의 생사에 관여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 큰 사람으로써 못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냥 키만 컸지 뭐.

이쯤 살았으면 주워 담지 못할 말들은 안 뱉고 살만도 한데 죽어도 싼가.

죽어도 싼 죽음은 없어.

진짜야?

늘 예외가 있다는 게 문제지만. 네가 웃을 줄 알았지. 약은 왜 먹었는데? 기타누락자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이 말 저 말 하다가 울더라. 나 불쌍하다고 그래서 내가 기대 했잖아. 뭐 슬퍼서 울긴 했는데 검을 안 빼주겠대. 아 뭐 지만 울었어?

너 울었어? 기타 누락자 앞에서?

살짝 옆 이었어, 비스듬했어.

한심하다. 넌 이제 끝났어. 여자는 틱틱대고 눈 안 마주치고 무관심한 그런 남자 좋아해. 어디서 눈물이야? 아휴.

그래서 넌 처음 보자 마자 울었어? 마셔 술.

넌 빨리 한쪽으로 결정을 해. 밉보일지 잘 보일지, 네가 무슨 햄릿도 아니고

셰익스피어 그 친구 참, 죽느냐 사느냐만 이야기 했더니 그런 걸작을 써내더라.

어디가 많이 안 좋아? 병원갈래?

고칠 수 있을까?

플라시보 효과 몰라? 상담이라도 받으면..

검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신이 정말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는 거라면 날 너무 과대평가 한 건 아닐까 싶다.

급한 대로 안겨 볼래? 뭐 그렇게까지 싫으면야.. 아이고 정신 사납다 그만해라.

역시 예뻐, 내 것이 맞아.

반지 사셨어요?

아니, 남자가 줬어. 그 남자.

헐 육교 그 남자? 만났어요? 언제요? 어때요?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이상하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얼굴 보면은 자꾸 까먹어.

근데 이거 되게 오래된 반지 같아요.

한때 나도 받았었지 반지 그 새끼에게 복수를.. 피의 복수를..

귀신에도 위아래 있다 아이가. 내 좀 먼저 좀 하자 좀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우야꼬, 그래서 말인데 도깨비한테 로또 번호 좀 알아봐도 어? 네 고시원 갸 부탁 들어 줬다매, 이참에 로또 번호 알아 내가꼬 내 알려주고 네 한 장 사고 하면 참 좋을낀데.

(사투리: 귀신에도 위 아래가 있어. 나 먼저 좀 하자.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말인데 도깨비한테 로또 번호 좀 알아봐 줘. 응? 너 고시원 걔 부탁 들어 줬다며, 이 참에 로또 번호 알아내서 나 알려주고 너 한 장 사면 참 좋을텐데.)

★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그거 알아요? 아저씨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감이 된 다는 걸? 항상 책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나도 본 받아야지. 우와 아저씨는 어쩜 시계 하나에도 우주를 담아요? 예술이 아저씨 손목에 앉았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 혹시 아세요?

네가 로또 번호가 왜 필요해?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면 검 뺄 시간이 날 것 같아서.

사 십 십사 십오 열여덟(십팔; 욕과 발음이 비슷하여 열여덟이라고 말한 듯) 이십이 (4 10 14 15 18 22)

★

고맙데이. (사투리: 고마워)

아 깜짝이야. 저 미행하신 거예요?

추적이야. 너 이거 천기 누설이야.

저 할머니는 괜찮아요. 엄청 착하게 살았어서 이 정도 복은 받아도 돼요.

귀신이 로또 번호 알아서 뭐 한다고.

자식들 꿈에 나타나서 알려 준대요. 그럼 전 이만 도서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

10장이요.

미성년자는 로또 못 사는데?

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분명히 있어요. 학생.

10장이요.

신분증이요.

아저씨, 이거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큰 건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호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아저씨 인생의 수호신이 머문 순간이라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아 아저씨 그니까 이게 오늘 로또 1등 당첨 번호인데요, 제가 돈을 낼 테니까 아저씨가 딱 사셔서 딱 반띵! 콜?

나가!

아 아 진짜예요. 아 진짜인데. 아 시간 없는데 진짜..

여기가 도서관이야?

여기가 도서관 가는 길에 마지막 슈퍼라서 우유라도 사 먹으려고 들린 건데요.

우유 안 사먹고 로또 사던데?

뭐 맨날 다 알지 이 양반은? 그래요. 그 애를 섰는데도 못 샀어요. 됐어요? 할머니 아들은 샀는가 모르겠네.

못 샀어.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느라 꿈을 못 꿨지.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잠을 재웠어야지요

올해 농사가 잘 안됐단 말이에요. 서울에만 비가 왔어, 서울에만.

모든 비를 내가 내리는 건 아니야. 절대적인 힘에는 예의가 필요한 거고.

아 뭔 소리신데요?

이번 주에 1등이 안 나와서 다음주로 금액이 이월 된다는 얘기야

그니까 그게 뭔 소리시냐고요?

정직하고 선한 부부였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겠지. 수호신이 한 턱 쏩니다.

진짜요? 그럼? 다음주에는 맞게 해 줄 거예요? 오, 좀 멋진데?

어차피 너는 다음주에도 못 사는데 왜 좋아해?

뭐 영원히 못 사나요? 두 달 뒤면 20살 되고 토요일은 매주 오고 토요일 밤이 좋구 로깨비 또깨비 빵!

야, 아는 척 하지마.

헐, 진짜 다 맞았어. 다 맞았어요. 어, 아저씨 괜찮아요?

★

아 진짜가? 아이구 우짤꼬? 고맙데이 참말로 고맙데이.

(사투리: 아, 정말로? 아이고 어떡하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저씨한테 전해드릴게요. 근데 요새 고시원 걔는 왜 안 보여요?

가 갸는 네 덕에 저리 갔다 아이가, 지 한 싹 다 풀고.

(사투리: 걔는 네 덕에 저리 갔어. 자기 한 싹 다 풀고)

그럼 할머니도?

야야, 네도 도깨비하고 알콩달콩 행복해야 된데이.

(사투리: 얘, 너도 도깨비하고 알콩달콩 행복해야 돼.)

★

건배.

아저씨, 죽으면 신 만날 수 있어요?

왜?

좀 따지려구요. 도깨비 씨, 너무 쓸쓸한 수호신인 거 같아서. 사람들은 모를 텐데.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준다는 거. 근데 나는 아니까 그래서 도깨비 씨 검 빼 주려구요.

뭐?

검 빼고 예뻐져서 더 찬란한 수호신 되라고.

야 은탁아, 아니 기타누락자, 네가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닐 텐데? 너 효용가치인가 뭔가 없어지면 내쫓길 수도 있어. 괜찮아?

이게 뭐 제 건가요? 인생이란 게 원래 잠깐 빌리고 잠깐 머물다 가는 거죠. 지옥이라는 게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엄마 보험금 어디 있냐고? 잔말 말고 갖고 와 얻어 터지기 싫으면. 네가 키워준 은혜를 이따구로 갚어? 이따구로, 이따구로, 이따구로? 근데 이 집에 와서는 맨날 행복했어요. 천국을 훔쳐 본 느낌이랄까? 그래서요 보답하려구요. 예뻐진다는 게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승 아저씨가 저 검 뽑는 거 응원하는 거 보면 아저씨한테 좋은 일인 거 확실하고.

★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쉿.

이제 그만 아파야지, 많이 아팠어. 엄마 걱정하신다. 착해라.

★

전 다시 태어나면 김태희로..

TEXT ON THE SCREEN

대기번호

02414945

대기인수 92414944명

번호 순으로 처리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야 미쳤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널 다시 만나게? 솔직히 너 너무 질려.

나쁜 새끼!

전 이제 어디로 가나요?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저승은 유턴이거든요.

해피, 해피니?

먼저 간 게 마음 쓰였는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해피가 잘 알 겁니다.

★

TEXT ON THE SCREEN

무조건 대출 가능

김미영팀장

무조건 전화 주세요

김미영 씨는 팀장이구나. 이 발소리,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김미영.

하아, 이 인간은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만날 수가 있나, 전화가 되기를 하나, 뭐 하는 인간이야? 대체.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하아

때로는 내가 선희라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겐 써니라 해도..

이 새끼 진짜 죽여 버릴까? 하아 열나, 아 자존심 상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집착하게 해? 아주 사람을 병들게 하는 남자야. 진짜 잡히기만 해 봐. 뭐야, 무섭게.

★

치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알바생, 너 혹시 귀신 뭐 그런 거 믿니?

예? 아니요. 아이고 사장님도 참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치? 귀신 같은 거 없겠지?

그럼요.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야 뭐 좀 이상한 일을 겪어서, 그건 그렇고 알바생 너 당분간 나오지 마.

왜요?

뉴스 봤어, 곧 수능이라며. 거에만 집중해 100점 받아 와.

100점 받으면 대학 못 가요, 사장님. (수능 만점은 보통 300 – 450점)

그래?

그럼 조금만 틀려, 제일 어려운 거 한 몇 개만.

네.

★

저 알바 다녀올 동안 잘 생각 해 보세요. 제가 뭘 원할지. 제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부디 행복해 주세요. 무엇보다 원하는 게 그거 라면 퍽 난감하군. 생이 나에게로 걸어 온다. 죽음이 나에게로 걸어 온다. 생으로 사로. 너는 지치지도 않고 걸어 온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야 마는 것이다. 서럽지 않다, 이만하면 되었다, 된 것이다 하고.

여기서 뭐하세요? 저 안 보이세요?

봤지.

뭘요?

너, 오는 거.

오 이렇게 길게? 오 좀 감동인데. 근데 그렇게 길게 보면 뭐 좀 다르나? 아님 그래도 여전히 그래요?

뭐가?

전에 그랬잖아요. 난 안 보인다고? 나이 20살, 30살. 아직도 그래요, 난?

응. 너한테서는 안 보여. 보통은 길흉화복(길함과 흉함, 재앙과 행복 – 사람의 운수) 정도는 보이거든.

그렇구나. 전 기타누락자라서 그런가 봐요. 존재가 참 시시했는데 특별해졌네요. 내가 만드는 대로 그게 내 미래 일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난 뭐 맨날 아프나? 저는 지금 겸허히 운명을 받아드리고 씩씩하게 사는 당찬 도깨비 신부라구요. 근데 참 궁금하기는 하다.

뭐가?

나의 20살, 나의 30살

이렇게 클 거야, 계속.

네?

이렇게 계속 예쁘게.

어떻게 알아요? 하루 이틀은 뭐 미울 수도 있지.

한 두 달일 수도 있지.

근데요 아저씨 수호신 그거 할 때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 그냥 그날 그날 내 마음.

어른과 아이 중에 주로 아이를 돕지. 세상에서 멀어질 뻔한 내게 처음 내밀어준 손이 어린아이의 손이었거든.

할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음, 그럼 그때 우리 엄마는 왜 도와 준 거예요, 어른인데?

그때는 내가 술에 취해 마음이 약했고 너네 엄마가 구해 달라고 한 건 자기가 아니었거든.

구해달라는 말에 답해 준 게 아저씨인 거 그게 새삼 너무 기적 같고 좋아서. 근데요 머리를 그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담 쓰담 하는 거 거든요.

오늘인가 보다. 하루 이틀 미운 날.

아이 나, 거기 서보시죠, 예? 아니 사람이 뭘 가르쳐 주면은..

★

우와, 이게 뭐예요?

트리.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한 거예요?

가지치기 할 겸 뭐라도 잘라내 볼 겸.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어. 이 두 손은 쉬어야 해서, 그럼 난 이만.

아저씨, 그 동안 제가 제 생각만 해서 죄송하네요. 진짜 쫓겨날까 봐 걱정도 됐었구요, 아저씨가 안 빼준다고 애걸복걸 하니까 재미도 있었구요, 아저씨가 예뻐져서 딴 여자 만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구요. 아니야 안 해요?

해야 돼?

에이 치사해.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어차피 전 결론을 내렸구요, 예쁘게 해줄게요.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의 부탁이 나쁜 결과를 낳을 리 없으니까. 어디서 예뻐지실래요? 예쁜 트리 앞에서?

지.. 지금?

네, 왜요?

오늘? 당장?

네. 쇠뿔도 단김에!

아,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이 아이 지금 지금 가.

아니, 핸드폰 거꾸로 드셨거든요?

★

뭐야? 죽었어?

예행연습이야. 술 있냐?

무슨 일인데?

검을 빼주겠대.

걘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 못 했어. 걔 나 많이 좋아하는 거 같은데, 걱정이다.

웃자고, 싸우자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걔 나 엄청 좋아해. 나 보자마자 사랑해요, 시집 올게요.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걔가 날 안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왜 없어? 나이 차가 몇인데? 걔 대학만 가봐. 잘생기고 어린애들 차고 넘쳐.

900년 그까짓 거 뭐.

너 왜 자꾸 나이 줄이냐? 939년 이면서.

야 사실 내가 빠른 년생이라 원래 한 살 적어.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술보다 낫네. 다시 멀리 해 볼까? 그 아이만이 날 죽게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날 살게 해. 웃기지?

착각하지 마. 걔 없을 때도 너 잘 살았어.

그랬나? 근데 왜 자꾸 그때 생각이 안 날까?

★

아저씨 도깨비예요? 아저씨 진짜 수호신 맞아요? 아저씨 귀신이잖아요. 아저씨 만난 것도 좋고. 그럼 아저씨 이제 안 떠나는 거예요?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 이제 비 올 때마다 아저씨가 우울한가 보다 싶을 거니까요. 대체 뭔데 내가 가치 있고 없고를 아저씨가 판단 하는데요? 나도 아저씨 필요 없거든요. 아저씨. 레드카펫 대박. 아저씨가 한 거죠? 완전 신기해. 아저씨.

그만 불러. 나 좀 그만 불러 지은탁. 나 좀 가자.

아저씨. 어디 아픈가?

★

학생이 집을 나오면 어떡하나? 위험하게 이모가 걱정하잖아. 빨리 타.

아저씨들 거칠다. 얼른 타.

스탑.

뭐요, 또?

아 이게 형님한테. 너 지금 내 그림자 밟았냐?

왜요? 아프슈? 아주 한 대 치겄소? (사투리: 왜요? 아파요? 아주 한 대 치겠어요?) 말을 해요. 이 참에 나도 계급장 떼고 한 판 확 붙어 보려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 야 그래 고소, 고발해서 어디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 아휴 이걸 그냥..

법도 모르는 게 뭐..

아는 사채업자 입니까?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그 누구나 아는 사채업자 하나쯤은.. 뭐래냐? 신기해서요.

저 누군지 아세요?

안다기 보다는 뵀어요, 덕화오빠 미행하는 거.

아.

근데 저 사람들이 사채업자인 건 어떻게 아세요?

저도 한때 사채업자였거든요.

예?

덕화군이 늦네요. 제 차로 가시죠

무슨 다 큰 사채업자들이 여고 앞에서 싸워? 수고 하십니다. 여기 중앙여고 앞인데요.

더 신기하신 분이구나.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뭐, 뭐!

어후.

그만 그만 그만! 여기가 어디라고 이 사람들이. 똑바로 앉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싸웠다? 하필 여고 앞에서. 이상한 의도 없이?

네, 이자식이 운전만 하면요 자꾸 거길 가잖아요. 다 너 때문이야 인마.

그럼 가기 전에 말렸어야지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이거 보세요. 사람 열 받게 한다니까요?

나도 열 받으려고 하니까 대답해라 왜 싸웠냐고, 애초에 너희들 같은 편 아니야?

네.

근데 요즘 이상하게 우리끼리 그렇게 싸워요. 접때도 한 번 싸워서 병원에 2주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다 낫자 마자 또 싸웠어요.

어디 폐는 안 끼쳐요 우리끼리 싸워서.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진짜 이게.

그니까요 장난 아니게 싸워요.

둘이 싸운 거다, 둘은 평생 화해는 못 할 거야, 참고로.

얘네 뭐지?

장난 아닌데.

★

덕화 오빠 되게 좋아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계산도 정확하고. 재벌 3세 답지 않게 참 소박하고 수더분하고.

네.

네.. 평소에 힘이 되는 좋은 말도 되게 많이 해주고.

예를 들면요?

죄송합니다.

네.

★

다녀왔습니다.

저거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여자 앞에서 시선처리.

도깨비 씨 요새 무슨 일 있죠?

몰라.

그냥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어떤 옛날 생각이요?

너 나한테 생각 맡겨 놨어? 내가 그자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아는 거 같은데.

몰라. 마늘이나 까. 이름 세 번 부르기 전에.

죄송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름 세 번 다 불렀는데 요새는 간편해 졌어. 한 번만 불러도 망자가 들으니.

그 일도 참 힘드시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더 힘들 거 같아? 기타 누락자.

마늘 제가 다 깔까요?

도깨비 그 자 사실 빠른 년생이라 본래 나이보다 한 살 적대.

네?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야.

잘 해봐.

근데요. 아저씨랑 저 처음 만났을 때 저 아홉 살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땐 열아홉 살이잖아요. 아홉 살 땐 울 엄마 때문에 얻어 걸렸다 쳐. 열아홉 살 땐 어떻게 알고 찾아 온거예요?

아홉, 열아홉, 스물아홉. 완전하기 바로 전이 가장 위태로운 법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밀 하나 알려 줄까?

네.

넌 스물아홉 살에도 저승사자와 만나질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그게 기타 누락자의 운명이야. 이승엔 질서가 필요하고 아홉은 신의 수이자 완전 수인 열에 가장 가까운 미완의 숫자니까. 이 또한 잘 해봐.

왜 그렇게 보세요? 비밀 뭐요?

내가 꿈을 잘 꿨어 그날. 아이 특진 할 수 있었는데.

아 뭐야? 빨래. 이건 아저씨가 마저 하세요.

★

아저씨.

왜?

대체 누가 급한 건지 모르겠네 진짜. 저 보이세요? 이제?

어.

혹시 저한테 뭐 화났어요?

내가 왜?

화 안 났는데 왜 화내요? 대체 언제적 것부터 화내시는 건데요? 나 왜 누적 마일리지 다 받는 느낌이지?

내가 언제?

지금도 봐요 내고 있잖아요.

네가 뭔데? 대체 너 뭔데 자꾸 불러 시끄럽게. 왜 자꾸 당황스럽게 해? 왜 자꾸 헷갈리게 해, 네가 뭔데? 검 뽑아 달라고 할 때 뽑아 줬으면 좋았잖아. 그게 네 가치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검 뽑아 드린다니까요. 말도 안 걸고 대답도 안 한 건 아저씨구요. 저는 혹시 첫눈 기다리나 했죠. 그게 애초에 약속이었으니까. 됐구요. 아저씨는 영원히 사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범한 인간이라 시간이 금이고 돈이거든요. 대체 언제까지 대기예요? 저도 학업이다, 알바다 해서 바쁜데.

내일.

오늘은 왜요? 저 오늘 시간 괜찮아요.

오늘 싫어, 내일. 오늘은 날이 너무 좋잖아. 산책할 거야 너랑.

내일.

아 또 왜요?

등교 하러 가기 전에 그냥 확.

오늘 날이 너무 안 좋잖아. 이따 너 데리러 가야지.

내일, 하루만 더.

아 오늘은 또 왜요?

그냥 하루만 더.

내가 맨입으로 해 줄 줄 알고. 칫.

★

나으리, 용서하십시오. 곧 따라가 뵙겠습니다.

내가 빚진 자들을 못 찾고 가는 게 한이라면 한이랄까. 이 그림은 자네가 태워 주게.

나으리.

내 어린 신부는 내가 없더라도 꼭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지낼 수 있게, 그게 자네 마지막 임무 일세.

말씀 잘 받잡겠사옵니다,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

아, 카드! 이거 진짜로 나 주는 거야, 삼촌?

더는 카드 한도에 국한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라, 덕화야. 내가 주는 상이다.

상? 나 상 왜 받아? 나 상 받을 짓 한 거 없는데.

잘 크느라 고생했다.

사랑해요.

이 자식이.

★

집문서는 네 방에 뒀어, 이제 진짜 네 집이야. 부디 오래오래 잘 살아. 그리고 부탁이 있어. 내가 사라지면 그 아이 낙인도 사라질 거야. 그럼 그때 그 아이 기억을 지워줘. 자신을 원망하지 않도록.

뭐라고? 크게 말해 봐.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이어폰을 껴.

어 귀에서는 멀리 뗐어. 얼굴은 보여.

야, 끊자 널 위해 끊는 거야. 신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미리 문자 하고.

얼굴이 안 보여. 너 귀에 댔어? 여보세요?

★

너랑 산책 하니 좋다. 너 데리러 오니 좋다.

어? 언제 왔어요?

너 보고 있으니 좋다.

요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줘요? 수상하게? 잠깐 손 좀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들을 청.

아, 들을 청. 감사합니다. 아저씨 굿 나잇.

★

좋았어 이제 해석만 하면 돼. 아 왜 해석이 안되냐고. 분명이 다 있는 거 같은데.

잠깐 들어간다.

아, 네. 대박. 이거 다 뭐예요?

필요할 거 같아서 어른 되면, 오백은 네가 더 잘 알 거고 이건 스무 살에 대학 들어가면 그리고 이건 대학 들어가서 남친 생기면 데이트 할 때.. 예쁘게.

이거 왜 줘요? 나 갑자기? 아 향 좋다.

오늘.

오늘 뭐요?

검.

지금요? 이 밤에요?

응, 지금.

그럴게요. 5분만요. 근데요, 이것들 어딘가에 사랑도 있을까요?

아니야.

그냥 한 번 물어 봤어요. 금방 나갈게요. 우와, 아저씨 문 뒤에는 항상 멋진 곳이 있네요. 메밀 밭 처음 봐요. 예쁘다. 혹시 아저씨가 저한테 준 꽃다발도 여기서 뽑은 거예요? 저 꽃말 아직 기억하는데.

연인

근데 여기 되게 특별한 데인가 봐요. 검 빼야 하는 게 꼭 여기여야 하는 거 보면?

나의 시작과 끝. 그럼 부탁 할게.

지금요? 바로요? 잠깐만요. 저는 아저씨가 예뻐지는 거는 찬성인데요, 그럼 이뻐지고 난 후엔 난 효용 가치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작성을 좀 해 봤는데요.

TEXT ON THE SCREEN

[나 도깨비 신부 지은탁 갑 아저씨 도깨비는 을로 칭한다]

1. 을은 갑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더라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갑은 여리다.
2. 을은 갑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더라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산다. 갑은 사고무탁이다.
3. 을은 갑의 남친이 생길 때까지 남친이 되어준다. 갑은 심쿵을 지향한다.

잘 먹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거 작성 한 거야?

아 여기 마지막 조항까지 보셔야죠.

을은 매년 첫눈 오는 날에 갑의 소환에 응한다. 갑이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TEXT ON THE SCREEN

1. 을은 매년 첫 눈 오는 날에 갑의 소환에 응한다. 갑이 기다릴 것이기 떄문이다.

서약인 김신 (서명)

진짜 죽게?

응. 첫눈이 오기 전에.

첫눈이 오면, 왜?

그 아이의 첫눈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이러려고 내 이름 물어 봤어?

아니요. 그건 진짜 궁금 했어요. 어울려요 아저씨랑 이름이랑.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뜻이지.

어떻게 알았지? 진짜 어려운 뜻인데. 대박. 눈이 와요. 첫눈이에요 아저씨. 근데 무슨 첫눈이 벌써 오지? 오 신기하다. 전 예뻐서 좋은데, 꽃들은 좀 춥겠다. 그쵸? 세상에서 제일 빠른 첫눈을 맞고 있어요, 우리. 근데 이거 아저씨죠? 첫눈 오는 날 뽑는다는 거 그거죠?

이기적이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나도 이런 기억 하나쯤은 남기고 싶어서.

근데 언제까지 남겨요? 아저씨 빨리 예뻐져야지.

그래 지금.

자, 그럼 이제 예뻐져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은?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 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잘못이 아니다.

아저씨 혹시 진짜 빗자루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제 뽑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잡히지? 보이는데도 안 뽑히죠 왜?

너 손에 힘 줬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까 분명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잘못은 아니다 라고 무르기 없기.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넌 도깨비 신부가..

아 그러니까 무르기 없다구요. 가만히 좀 있으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당황스럽거든요?

야, 가만히 있잖아. 지금보다 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야 너 그 서약서 내놔. 불태워 버리게.

잠깐만요! 나 알았어요. 이거 그거인 거 같아요. 저 알아요.

뭔데?

그 동화 속의 왕자님, 그 저주 걸린 왕자님. 그거요.

그거 뭐?

입맞춤이요.